

고 회 목 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8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6월 20일(금) 저녁 7시 30분

2008년 제2차 청지기훈련



‘두 세계’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말씀과 삶 (금요찬양집회)

오류에 대한 착각

인간의 감정은 사실과 공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감정은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반응을 보일 뿐이다.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신호를 보낼 때에 우리의 감정은 이에 따라서 반응을 보인다. 생각에 반응을 보내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넣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결정한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다스릴 수가 있다. 성경은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향하여 말씀하시지, 우리 감정을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는다. (빌 4:7-8) 우리 마음의 생각들은 우리 감정과 욕망을 자극하며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보다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6:34)

어느 교회에 종결되는 한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목사님은 말씀을 생각했다. (요 8:12-32) 이 여인의 문제는 딸의 결혼식이었다. 딸은 간소한 결혼식을 원했고, 이 여인은 교회에서의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다. 이 여인은 많은 교인들의 축하를 받기 원했던 것이다. 여인은 목사님께 질문하였다. “딸이 내 뜻을 존중해 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은 답하였다. “당신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남이 선택할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딸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당신 부부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온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포에 놀라 있고 자기 외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 없이 당신 뜻대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이기적인 주장을 펴고 있으니 사랑하는 딸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감정 때문입니까?”

우울증이 있는 많은 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잘못된 생각에 갇혀 감정적으로 육신을 옮기낸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것과 진리를 구별하는 것, 또한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이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다. (롬 15:4)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는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무기는 공포와 두려움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신다. (딤후 1:7)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다. (마 6:33) 사탄은 우선 부자가 되라고 속삭인

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신다. (마 6:19-21) 사탄은 유령해 지라고 한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신다. (마 16:24) 사탄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며 하나님도 자신을 돕는 자를 돕는다며 미혹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빌 2:3-4) 사탄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다. (마 4:4) 사탄은 우리 자신의 뜻대로 하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신다. (눅 22:42) 사탄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만이 진리라고 선포한다. (요 17:17)

말을 듣는 것과 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모른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 진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에 자존심 상해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 (고전 2:11,14)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가(고전 2:12) 율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다. 율법은 자연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관용이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려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고전 2:9)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에 관하여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만 한다. (약 4:5-6) 교만한 자들은 은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식어지고 매달라 갈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딤후 3:15-17)

하나님의 찬미찬인 사랑과 은총은 그의 자녀들에게 참 생명의 삶을 살도록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파멸에 이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로 산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 산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 위에 만들어지신다. 하늘 보좌를 떠나 말 우리에 나심으로 시작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아멘.

HOLY SPIRIT COMING DOWN

(18)“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ANOINTED M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FREE THOSE WHO ARE OPPRESSED, (19)TO PROCLAIM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Luke 4:18~19)

Standing in the Nazareth synagogue on the Sabbath, Jesus read to the congregation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anointed M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free those who are oppressed, to proclaim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Lk 4:18~19) After Jesus read these verses from Isaiah 61:1~2a, He sat down and said to everyone listening,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Lk 4:21) The Holy Spirit was upon Jesus to preach the gospel, and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upon all believers is also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reason for the Holy Spirit coming down is to empower humans to proclaim the gospel. Satan’s power is much stronger than any human’s power, and the Lord does not want people to reach others with the good news with their own strength. He wants Christians to rely on the Holy Spirit, and only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came down on Jesus, the son of God,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aroun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Lk. 4:1) Jesus needed the Holy Spirit to preach to the afflicted, brokenhearted, captives, and prisoners. He needed the Holy Spirit to minister to those His Father had placed before Him. He needed the Holy Spirit to endure His longsuffering and cross. He needed the Holy Spirit to fulfill every prophecy spoken about Him in the Old Testament. Jesus and the Holy Spirit worked together in carrying out God’s salvation plan, just as they worked together in creation.

The Holy Spirit came down on the primitive church. Look at how He directed Philip in his ministry to the Ethiopian eunuch, “But an angel of the Lord spoke to Philip saying, ‘Get up and go south to the road that descends from Jerusalem to Gaza’” (Acts 8:26), then the Spirit said, “Go up and join this chariot” (Acts 8:29), and finally He “snatched Philip away.” (Acts 8:39) Stephen, the first martyr, also listened to the Holy Spirit and was full of grace and power, and even performed “great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 (Acts 6:8) When he preached, his critics “were unable to cope with the wisdom and the Spirit with which he was speaking.” (Acts 6:10) He stood up in front of Jerusalem’s angry religious Council, and all who saw him, “saw his face like the face of an angel.” (Acts 6:15) Now that is something no one can fake. The Bible contains many references to the primitive church, like Peter, Paul, and the many believers who were forced to leave Jerusalem, who based their ministry 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Mark 16:20 tells us, “And they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while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the word by the signs that followed.”

The Holy Spirit comes down on today’s church. Wherever believers gather to worship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is always there. He sends out believers, gives them the information, and commands them to open their mouth and preach the good news. Acts 10:38 says, “You know of Jesus of Nazareth, how God anointed Him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power, and how He went about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oppressed by the devil, for God was with Him.” As a believer, God is with you too, and His Holy Spirit lives within you. When Peter went to Caesarea, he explained to them, “You yourselves know how unlawful it is for a man who is a Jew to associate with a foreigner or to visit him; and yet God has shown me that I should not call any man unholy or unclean.” (Acts 10:28) He also said, “I most certainly understand now that God is not one to show partiality, but in every nation the man who fears Him and does what is right is welcome to Him.” (Acts 10:34~35) The good news is for everyone! Our ministry is to share that news.

The Holy Spirit will come down on the churches of the future. Luke 19:13 says, “And he called ten of his slaves, and gave them ten minas and said to them, ‘Do business with this until I come back.’” God gives every Christian a special talent, but you have to use it with the Holy Spirit, not your own effort. Until Christ returns or you die, you need to spread the good news whether it be at home, school, jail, work, or wherever. You must preach the gospel with the Holy Spirit’s strength. People everywhere need to hear God’s message. You are His light here on earth, and the power of your shine comes from the Holy Spirit.

Jesus said,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8) Jesus instructed His disciples not to witness until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Gathering them together, He commanded them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for what the Father had promised, “which,” He said, “you heard of from Me;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Acts 1:4~5) The promised Holy Spirit came ten days after Jesus’ ascension and continues to come upon every believer. His coming is why we have churches in South Korea and even China today. God wants His Word spread all over the world, so we definitely need the Holy Spirit to fulfill His great command. 

성령강림

-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18~19)



김석관 목사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회중들 앞에서 이사야선지자의 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이사야 61:1~2을 읽으신 후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어 복음을 전파하도록 임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는 인간의 힘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눅 4:1) 고통 받는 자, 상심한 자, 포로 된 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기나긴 고통과 십자가를 견디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자신에 대해 말한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동역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초대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에디오피아 내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행 8:26) 이윽고 성령님은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8:29) 마침내 성령님은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행 8:39)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역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심지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행 6:8) 스테반이 철교했을 때 그를 대적하던 자들도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행 6:10) 그가 예루살렘의 성난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를 주목하여 본 모든 사람들은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행 6:15) 스테반에게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해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신자들 등 성령은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20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

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날의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임하십니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보내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0:38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또한 신자인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는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행 10:28)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행 10:34~35)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에 임하실 성령님

성령님은 미래의 교회에도 임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13은 말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맡ат은 특별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거나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곳이 집, 학교, 일터 심지어 감옥이나 그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원동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증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중국에까지 교회가 생기기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방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준행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6. 4.)

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22~23)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역사적 사실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인류역사에 개입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역사라 인해서 이제 우리는 천국시민권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은총의 역사이다. 그런데 이 은총의 역사는 약한 영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갔다. 약한 영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속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복음은 세계로 전파되었고, 중세시대에 기독교는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비록 국가차원에서 기독교를 공인하였지만 그 내면은 아주 심하게 부패하여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들을 위한 영광과 명예로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은총을 상실한 영적 위기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광범위하게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영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세계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모든 법을 지켰었다.

기대치 않았던 모세의 결례를 행하신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제예식을 행하였다. (눅 2:22 ; 레 12:1~4,6)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세의 결례는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법을 지켰었다. 이 예식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예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다. (창 17:9,14)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뒤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롬 4:9-10)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갈 5:6)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리니' (갈 6:15) 그리스도의 할례(롬 2:11)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대치 않았던 모세의 결례를 행하셨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다.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행하였다. (눅

2:23)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제정해 주시며 요구하신 법이었다. (출 13:2)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니라" (민 18:15) 예수님은 법대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규례를 지켜야 했을까? 법을 지키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규례를 지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다. "때가 차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 4:4~5)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극심한 고통과 온데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히 2:17~18)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법을 지켰었다.

죄에 대한 의로움의 심판을 당하시므로 의의 길을 여시었다. 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은 의의 심판을 당하시므로 의의 길을 여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 (마 5:17~18) 믿음이 없으면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도리어 율법의 세계에 갇힌다. 우리를 대신하여 법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자.

우리의 의를 지적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지적하셨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셨다. (마 5:19~20)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대답하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완전한 일을 이루신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노련한 그리고 열정을 통해서 법을 지킬 수 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다. (골 1:19~20)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 2:3) 그러므로 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담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 2:6) 우리 의의 근거가 나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믿음'에는 '내 생각'·'내 실력'·'내 뜻' 밖에 없다. '나의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자. 이것이 참 믿음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전심으로 회개하자. 오직 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자. '비할 수 없는 그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 251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 2008. 4월 26일 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믿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라

(4:33~34)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을 사귀었던 사람들은 비유를 듣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율법에 능통한 종교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던 말론전문가였던 그들은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자신의 기득관·문화권·전통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항상 부정적이었다. (막 4:11~12) 종교인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있었음에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알아 들을 수 있는 만큼 쉬웠다. (막 4:33) 이 비유 속에는 '천국'이 담겨 있었다. (막 4:2) 그런데 6세左右的 비유를 통하여 알 수 있었지만 천국복음 (마 13:19)에 대하는 반응은 각각 달랐다. 30·60·100세의 열매를 거두는 땅이 있는 반면에 전혀 열매를 내지 못하는 땅도 있다. 동일한 천국복음의 씨였지만 깨달은 지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다. (눅 8:10)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 심각한 죄였다. (막 7:13)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임했다. (눅 3:2)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 (막 4:4 ; 신 3:6) 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살전 2:13)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행 13:26)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믿는 자만이 주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 (갈 6:6) 따라서 우리는 매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양심,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말하고서 섞는 죄를 범하지 말자. 우리의 모든 것은 반드시 변화시킨 말씀은 영생토록 불변한다. 이 말씀을 간직할 마음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이다. (행 17:11) 이때 말씀은 우리의 삶은 은혜로 났다. '은혜의 말씀'은 보혈로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 (행 20:32) 동시에 이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말씀 (골 10:8)이기 때문이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미 영벌이 확정되었다.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에 필요한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다. (고후 5:19) 예수님의 비유는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요일 1:1) 이 변화하는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주신다. (골 1:5) 예수님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골 3:6) 인간이 행한 바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는 '비본 말씀'이다. (딤후 1:9)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바로 잡아 줄 유일한 '회복의 말씀'이다. (히 5:13) 삶의 지침이 되는 '변명의 말씀'이다. (히 13:22)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시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막 4:34) 앞에서 언급한 대로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의 비유에 담겨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자.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 내린 결론밖에 얻을 것이 없다. 자존심, 실력, 경험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자. 자기를 부리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수 없다. 영생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거나, 편의대로 해석하지 말자. 예수님이 사명으로 주신 비유를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자.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수확성 여인, 수로보나기 여인, 거러야 편인, 막달라 마리아, 사개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자. 그리고 온 땅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자. 아멘.

사랑할 것도, 나누어 줄 것도, 살 길도, 오직 복음!



7교구 3지역

◆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나에게 천사도 호모하는 복음전파의 직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옥렬 집사)

◆ 첫날부터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어 공안에 게 붙잡혔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무사히 풀려났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경찰이 계속 추격하여 맘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이규국 권사)

◆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해 온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겠습니다. (전옥희 권사)

◆ “듣지도 못한 이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로 10:14) 이 말씀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았다.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가겠나이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조준옥 권사)

◆ 경찰의 감시대상이 되었고, 전도지도 사용할 수 없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울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니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김명숙 집사)

◆ 우리가 사랑할 것도 복음이고, 나누어 줄 것도 복음이고, 살 길도 복음이었다. “답대하라! 두려워말라!” 하신 말씀이 사역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나에게 선교사의 신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잔잔하게 은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구원으로 세우기심과 쓰임 받음에 감사한다. (최미지 집사)

◆ 속소를 네 번이나 옮겼다. 가는 곳마다 사탄을 꺾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다. 밤에는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위 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대원도 빠짐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케 하셨습니다. (임민비 집사)

◆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환원 발자취가 되어 자신의 뜻이나 과거의 경험을 버리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도록 성령님을 사모하며 정해진 사역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경찰들로 인하여 감옥상태 사역지를 옮겼다. 그곳은 주님이 예비하신 사역지였다.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는 사도행전적 선교를 체험하였다. (정길남 인수집사)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며

20년 전, 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전도지를 받아도 읽지도 않고 버렸다. 그러던 나에게 잔잔한 변화가 생겼다. 결혼하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가정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나를 전도자로 바꾸셨다. 전도할 때마다 때면 느끼지만 정말 예수님 주변은 소동과 고교라 그 자체인 것 같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과 이웃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보면 나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질 그릇 조카 같은 심령이 된다.

“나는 삼위일체 아불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고전 3:6)라는 말씀을 외치며 전도지를 정성껏 건넨다. “너희는 네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전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영혼을 불러 주시리라 믿고 전도한다. 그러하여 육신을 위한 생동기 아닌 복음을 위한 생동기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로, 밝은 등불이 비치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줄 믿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며 전도지와 <주간 충현>을 나누어 준다.

한창 전도를 하다 보니 몸에서는 땀이 난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 가끔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통이나 길가에 버려진 전도지에 눈에 들어오면 가시판을 찌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외면당하여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복음의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귀한 소식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안드레는 복음을 듣자 마자 전하지 않았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로 10:15) 아멘.

서현원(한수집사, 15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일(월)~6월 10일(화)	11교구 3지역	김현배
6월 3일(화)~6월 11일(수)	5교구 2지역	이정태
6월 5일(목)~6월 13일(금)	1교구 5지역	송한천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6일(월)~6월 4일(수)	18교구 1지역	김영환
5월 29일(목)~6월 7일(토)	21교구 5지역	양승복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소년부



이달록(장로, 소년부장)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는 말씀을 2008년 교육주제로 정한 소년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 충현의 어린이는 미래 교회의 기둥이며 복음의 주인공이다. 그러기에 소년부의 기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다.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년부는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제1교육관 507호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한다. 믿음의 성장기에 있는 소년부 시절은 특별히 중요하다. 이 시기의 믿음의 가르침은 건물의 기초와 같으며, 향후 일생전 믿음 생활의 기본을 형성한다. 그런 만큼 소년부생성부들은 더욱 영적 준비를 온전히 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소년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믿음의 기초이다. 이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평생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도록 가르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반

복해서 가르친다.

두 번째로 중점을 두는 것은 믿음의 실천이다.(딤후 4:6) 한마디로 믿음생활이다. 주일예배와 성경공부 교재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친다. 또한 말씀암기와 쓰기를 통해 성경을 일독모도 지도하고 있다. 간절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고 있다. 1인 1장 성경과 전도를 통하여 전도도를 생활화하고, 학교전도를 통하여 친구로부터 주위로부터 작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지도하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며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자기부인이다.(마 16:24)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여 실천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욕심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있다. 결실한 친구들이 많은 양 같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생활신앙은 아침기도회를 통해 성령을 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 이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데 마음을 모으고 있다. 소년시절부터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어린 생명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단단하게 자라 천국왕국으로 양성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양육하는 소년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향기

속죄 양이 되신 예수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수요성경공부를 통해 고린도교회의 문제점이 오늘날의 교회와 너무나 비슷하고,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자신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교회의 모습인 것도 깨달았다. 결국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오직 십자가만 붙잡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많은 모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것만 자랑하였다. 그는 사도직에 대한 자격시비와 비판, 능력을 의심받으며 무시당한 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 받는 등 사도로서 참기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다.

바울의 이런 모습들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였다. 나는 작은 일에 섬세해 하고 때로는 아쉬워하며, 은근히 인정받기를 원했다. 너무나 나약한 모습뿐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셨다. 바울로 인해 고린도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허를 잡고 죄 많은 나 역시 이웃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 가리. ~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때 까지." 이 찬양처럼 사람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기도드린다.

김윤환(안수집사, 4교구)

구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딱딱하고 거룩함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제사의식과 잘못된 제사장도 죽는 엄격한 규례들을 기록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레위기에서 나타난 제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었으며,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상에서 인류를 대속하신 화목제의 실현이 곧 구약제사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레위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주요개념은 속죄 양이 되신 예수님이였다. 반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언약을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제사가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자기의 범죄를 짐승에게 인수하여 짐가하고, 죽이고, 피를 뿌리며, 가족을 버져 각을 뜨고, 태우는 이런 제사가 매일매일 반복되던 괴로운 수고와 고통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린 고통으로 흘린신 보배로운 피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또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을 통하여 고문 가루 예물로 지워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다.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없듯이 참 회개가 없는 제사도 있을 수 없다. 늘 죄를 자책하고, 늘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소망한다.

오정례(집사, 1교구)

"교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교사양성부 교육 첫 시간에 들은 말이다.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들던 나는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학부 때 교육학을 전공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 받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강의를 듣는 내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매주 강의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을 전하는 교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얼마나 복음에 기초한 교사의 모습으로 서 있던 말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득 새기었다. 교사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 없이 들었던 교사양성부의 모든 과정을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기독교 사로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게 맡겨 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미현(집사, 15교구)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을 회개하며

성경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새로운 생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들면 그 연약한 줄기를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불렀다. 슬픔 때나 기쁨 때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날 찾아주셨고, 나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다. 때로는 넘어지고, 화나고, 지칠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힘 주시는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말씀은 언제나 정말 소중한 나의 삶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보면 '성경공부가 좋은데...' 라고 은근히 권했다. 이번 회개에는 시편을 공부하였다. 시편이 감동과 말씀인 줄은 알았지만 정말 귀한 강의였고,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은 삶이 켜지고 있었다.

시편 강의를 중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귀절은 시편의 진주라고 말하는 23편이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시 23:1) 이절에는 그저 평범한 말씀인 줄로 알았지만, 성경공부 중에 그 풍성함을 깊이 느꼈다. 그 말씀으로 나는 하늘에 봉 뜬 느낌이 되어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최근에 친구를 만나 이웃 분들을 만나면 나에게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그럴 때면 "저 은혜 받아서 그래요."라고 대답한다. 그들이 알아들든지 못 알아들든지 말이다. 나는 요즘 말씀을 읽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 가슴에 꼭꼭 새기며 읽고 부른다. 나의 삶과 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주님! 말씀으로 저 안에 늘 살아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를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원영주(집사, 13교구)

이방인 개종자 데오빌보다 더 이방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를 부족한 내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 주저 없이 성경공부를 신청했다. 염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뜨거운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소망하면서 말이다.

누가복음을 낮고 천한 곳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유년시절과 성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숨결과 발걸음조차 느끼게끔 자세하게 기록된 복음서였다.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이기적이고 편협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인이 천국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환영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먼저 믿었지만 안일한 상태에 빠져 참 감사의 조건을 상실하고 비리새인과 같은 자였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죄인인 나에게도 귀를 기울여 기도할 수 있고 십자가 보혈의 절대적 사랑으로 섬겨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진정한 평안을 내려 주시는 예수님께 진실로 감사드린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한다.

나는 잘 들기 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경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수요성경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정윤신(집사, 6교구)



복음에 기초한 친(親)안경적 삶

심자가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지금 세계는 기상이변과 국제유가 폭등으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도 이 폭풍 한 가운데 있습니다. 차츰 식육값으로 기업은 물론 가정 온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대담하십니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에너지 위기의 대담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노라"(요 14:1)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기 마음을 부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어떤 구호나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지금보다 조금 더 불편해지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친환경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행 4:32) 단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적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은 각 집회실의 불필요한 전등은 즉시 소등해 주시고, 각 부서는 에너지 관리자를 정하여 예배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화장실 전등은 이용자가 없을 때는 소등해 주시고, 물 사용 또한 절제해 주십시오. 커피터를 쓰고 난 후에는 전원을 반드시 꺼 주십시오. 냉난방기 사용 시에는 권장온도(여름 26℃, 겨울 20℃)를 지켜 주시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이용하십시오. 공에

매 우에는 분당사용을 자제하고 복속실을 이용하십시오. 모든 집회와 모임은 기급적 예배요일(주·금·토·주일)로 정하여 주십시오. 이밖에도 이면지 사용을 포함한 교회활동 사용에도 유의해 주시고, 교회에 올 때 기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친환경적 교회를 위해서 교회도 더욱 힘을 것입니다. 교회의 각 실과 지하주차장 등기구 및 부품을 조절전형으로 교체하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며, 각 실별로 스위치 회로를 구분하여 관리할 것입니다. 냉난방 급수배관을 건물별로 차단하며 노후되고 복잡한 배전시스템을 교체하고 세면기, 소변기 등에도 자동센서를 장치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초점을 맞출 때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한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친환경적 교회가 됩니다. 단순한 구호나 운동으로 끝내지 말고 복음에 기초한 친환경적 삶을 살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부린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찬양대원양성부 과정을 마치며

성령님의 은혜

어릴 적부터 음악시간을 가장 두려워했던 나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찬양은 가사가 전부라는 생각으로 가사를 외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게으름과 부족함으로 한 곡도 외우지 못하였다. 교구찬양 때나 가사를 겨우 외우고 나면 다시 잊어버리기를 반복하였다. 그래서 '찬양대에서 봉사하면 가사를 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주위의 권유를 못 이기는 척하며 찬양대원양성부에 지원하였다. 뒷자리에 앉아서 시간만 대충 때우고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에게 출석표정리, 감의실정리의 입무가 맡겨져 꼭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나에게 찬양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찬양이 귀한 예배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많은 말씀을 보여 주셨고, 또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원은 성령하며 말씀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신성한 직분임을 깨닫게 하셨다. 찬양과 예배를 인일하게 생각했던 나의 고만함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또한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회개하였다. "믿음 없고 나약한 자를 귀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게 하신 주님, 지금 주신 귀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찬양대원으로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데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김희동(집사, 4교구)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63	고민성	19	중동2부	김진선(5)	1198	류승민	25	외선부		1233	김동희	22	찬양1부	김희현(10)
1164	신은혜	18	대동부	신하숙(18)	1199	이윤	25	외선부	이진희(16)	1234	차서정	25	에버다부	김수현(10)
1165	정영희	12	찬양1부	이승진(12)	1200	전보영	8	중동3부	이현진(17)	1235	이영자	1	찬양2부	이영희(10)
1166	김민정	2	홍동2부	김진선(2)	1201	박기현	13	소년부	심정순(22)	1236	김민수	8	대학부	박용(17)
1167	박나연	14	중동3부	전혜영(15)	1202	송영민	8	중동3부	1237	정영희	9	고동부	하보라(9)	
1168	윤은혜	8	찬양1부	변기승(24)	1203	김미선	25	사남부	1238	유성호	19	찬양1부	서수일(22)	
1169	이소정	10	찬양3부	이희자(10)	1204	박기현	6	찬양1부	1239	유주리	19	고동부	정영희(22)	
1170	정영희	7	외선부	1205	정영희	11	찬양1부	김정희(7)	1240	정영희	12	찬양1부	정영희(15)	
1171	김이희	7	중동1부	이진솔(7)	1206	안영희	7	고동부	김정희(7)	1241	조병희	9	찬양2부	서유진(13)
1172	이희자	23	찬양2부	문정숙(23)	1207	전수은	1	찬양2부	이영진(12)	1242	조병희	11	찬양1부	서유진(13)
1173	지현수	8	소년부	학(11)	1208	박기현	2	찬양1부	이영진(12)	1243	김민수	25	에버다부	노지현(20)
1174	정영희	17	외선부	1209	정영희	1	소속부	조영진(11)	1244	김민수	11	찬양1부	이아름(10)	
1175	양영희	17	유선부	한영진(17)	1210	이영선	6	찬양1부	김영희(10)	1245	정영희	11	대학부	김소희(15)
1176	정영진	6	찬양1부		1211	정영진	7	찬양1부	구영진(7)	1246	이영진	10	찬양2부	이영진(22)
1177	김보선	22	찬양1부	김정희(6)	1212	최은혜	8	찬양1부	박(7)	1247	김민수	1	찬양2부	김소희(22)
1178	박세종	20	중동1부	정영진(17)	1213	김민수	13	찬양1부	조영진(14)	1248	정영희	10	찬양1부	박노지현(20)
1179	박세종	20	중동1부	정영진(17)	1214	이영진	9	찬양1부	정영진(13)	1249	신은혜	5	찬양2부	이영진(20)
1180	정영진	13	중동1부	이영진(13)	1215	간수영	4	고동부	김재경(5)	1250	정영진	21	찬양1부	김영진(15)
1181	루지현	1	찬양1부	박영진(2)	1216	차기현	17	찬양2부	차영진(10)	1251	박영진	14	대학부	박영진(10)
1182	홍성진	5	소속부	김정희(3)	1217	유성진	22	찬양1부	김수미(21)	1252	정영진	14	대학부	이영진(10)
1183	최영진	24	소속부	한영진(24)	1218	오영진	10	찬양1부	권미라(14)	1253	김민수	22	찬양1부	박영진(10)
1184	김영진	23	대동부	김수영(23)	1219	권영진	4	고동부	권미라(14)	1254	신은혜	22	찬양3부	홍복기(7)
1185	한영진	14	찬양1부	최영진(3)	1220	고희재	2	찬양2부	이영진(22)	1255	유지현	7	찬양2부	김정희(22)
1186	최영진	22	찬양1부	오영진(24)	1221	김정희	2	유선부	이영진(22)	1256	양영진	10	찬양1부	박노지현(20)
1187	박영진	8	중동2부	이영진(8)	1222	김정희	23	중동3부	정영진(16)	1257	안영진	11	찬양1부	김정희(11)
1188	박영진	5	찬양2부	안소희(14)	1223	간수영	12	찬양1부	정영진(16)	1258	김영진	11	찬양1부	김소희(11)
1189	김영진	9	찬양2부	안소희(10)	1224	노영진	7	찬양2부	강영진(9)	1259	오영진	17	유선부	오영진(11)
1190	송지현	1	찬양2부	고영진(1)	1225	김민수	24	찬양2부	김정희(10)	1260	조수현	2	찬양1부	김정희(22)
1191	정영진	22	고동부	김영진(22)	1226	권영진	23	소동부	정영진(16)	1261	안영진	10	찬양1부	김정희(11)
1192	이영진	22	찬양3부	이영진(17)	1227	안영진	15	찬양1부	김영진(10)	1262	정영진	11	찬양1부	이영진(11)
1193	김영진	24	찬양3부	김민수(15)	1228	한영진	13	대학부	송영진(13)	1263	이영진	25	외선부	이영진(11)
1194	송지현	2	찬양2부	정영진(2)	1229	김영진	16	찬양2부	노영진(16)	1264	송지현	2	찬양1부	이영진(11)
1195	홍성진	25	외선부	정영진(21)	1230	정영진	16	찬양2부	송영진(16)	1265	고영진	5	찬양2부	이영진(11)
1196	송지현	25	외선부	정영진(21)	1231	정영진	10	찬양2부	송영진(16)	1266	정영진	20	찬양2부	유영진(15)
1197	미리나	25	외선부	1232	박영진	23	찬양2부	김소희(23)	1267	박영진	24	찬양2부	정영진(24)	

종교헌법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 너는 신앙생활, 즉 주님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와 기준도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이다. 믿음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에 있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위장한 자신의 공로를 주님께 제시하며 거래하려고 한다. 어느 순간 이러한 생각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마저 침식해오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온갖 이념이 십자가에 걸목시키려고 하지 말자. 최고의 부와 특권만 사상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허할 뿐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무조건적 절대사랑을 희석하지 말자. 인간의 조건에 십자가의 사랑을 미루며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어 행하시는 주님의 초월적인 은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만 하면 된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은총 안에 거하자. 이것이 어려우나?

(판공)

